

‘뉴 르네상스’를 꿈꾸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시작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서울특별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뉴 르네상스’를 준비하고 공공분야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할 예정이다.



01 스마트 트레인 안전관리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하철 혼잡도 정보 제공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첫 번째 계획은 바로 스마트 트레인 안전관리다. 스마트 트레인 안전관리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통해 전동차와 선로 등 고장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전동차 차체에 장착된 카메라와 센서가 운행 중인 전동차를 실시간으로 안전 점검한다.

올해까지 서울시 지하철 2·5·7호선에 도입될 예정이며, 2022년까지 전 노선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여 철도·철교 등 시설물을 원격으로 점검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2022년 시범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 계획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하철 혼잡도를 제공한다. 이는 위치기반 빅데이터를 토대로 전동차별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승강장 스크린도어 상단 LED 모니터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2023년까지 전 노선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02 월드컵경기장 등 초연결 복합공간 구현과 H-O-U-S-E 분야 스타트업 창업 지원

서울특별시시는 화상 회의가 가능한 ‘스마트워크스테이션’에 5G 기술을 결합한 ‘초연결 복합공간’설치를 추진한다. 먼저 2021년 월드컵경기장 내 유희부지를 활용해 화상회의 스튜디오와 홀로그램 공연장이 시범 조성된다. 향후에는 서울 전역의 주요 거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특별시시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H-O-U-S-E 분야 스타트업 창업 지원에 나선다. H-O-U-S-E 분야는 Health care(의료·헬스케어), Online(리모트·디지털화), Untact(언택트 산업), Smart infrastructure(스마트 인프라), Economy at home(가정 내 소비)으로 자체 출자금과 민간 벤처캐피털을 유치해 총 5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03 언택트 서비스 대폭 확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민원업무는 물론 신용보증 신청까지 민원인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untact) 공공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지갑 없는 지하철, 비접촉식 게이트를 2022년 까지 1~8호선에, 2023년에는 모든 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그럼 스마트폰 앱을 켜고 게이트를 통과하면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 되기 때문에 완전한 비접촉이 가능하다.

04 감염병 대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시는 감염병과 공존해야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감염병 효과를 극대화한 ‘S-돌봄 감염예방 디자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S-돌봄 감염예방 디자인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종합재가센터 등 돌봄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다. 이는 이용자 이동동선, 수납 디자인, 세면대 배치, 환기시설 등 공간·제품에 디자인을 적용하여 전염 및 감염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S-돌봄 감염예방 디자인’개발이 완료되면 영유아(국공립어린이집), 초등(키움센터), 어르신(종합재가센터) 등 생애주기별 돌봄시설 25개소를 선정하여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매우 가까운 미래이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혁신되어야 할 부분이다. 코로나19 제2차, 제3차 파도를 대비해 상시 방역체계를 갖추고 공공영역부터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서울특별시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공기관 혁신 표준 모델을 만든다는 목표로 혁신을 본격화할 계획이다.